



**북한의 SDGs 목표달성을  
위한 남북 통계협력방안 모색  
: 북한 중앙통계국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손주희

# 목 차

## 1. 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혁명’

- 1) SDGs 이행에서 통계의 중요성
- 2) SDGs 이행에서 국가통계당국의 역할
- 3) 남북한 SDGs 이행 및 SDGs 데이터구축 현황

## 2. 북한 SDGs 이행과 통계역량강화 강조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 1) 북한 SDGs 이행 체계
- 2) 북한 SDGs 이행과 중앙통계국의 역할
- 3) 북한 SDGs 통계 구축의 문제점

## 3. 북한 SDGs 달성을 위한 남북통계협력 방안 모색: 중앙통계국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 1) 북한 중앙통계국-UN 통계 역량강화 협력사례
- 2) 남북 통계협력에 대한 시사점

# 1. SDGs 목표달성을 위한 ‘데이터혁명’

# 1) SDGs 이행에서 통계의 중요성

## ① UN MDGs와 SDGs

MDGs(2000~2015), '세계빈곤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 하,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60개 지표설정



SDGs(2015~2030),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1개 지표설정

## ②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

- 2014년 11월, UN사무총장 의뢰로 발간 「셀 수 있는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 보고서 :  
SDGs 이행과 모니터링에서 '객관적 데이터' 중요성 강조 → SDGs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SDGs 지표 세분화
- 국가통계시스템 열악한 개도국은 UN에서 요구하는 세분화된 지표에 근거한 빈곤정도와 상황, 경제여건, 사회 환경 등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우며, SDGs 데이터 구축도 미진한 상황임.

### ③ SDG17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와 ‘통계역량강화’ 지원

#### ➤ 세부목표17.18 : 개도국의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고품질,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구축 지원 강화

#### ➤ 세부목표17.19. : 개도국의 국내총생산 측정을 보완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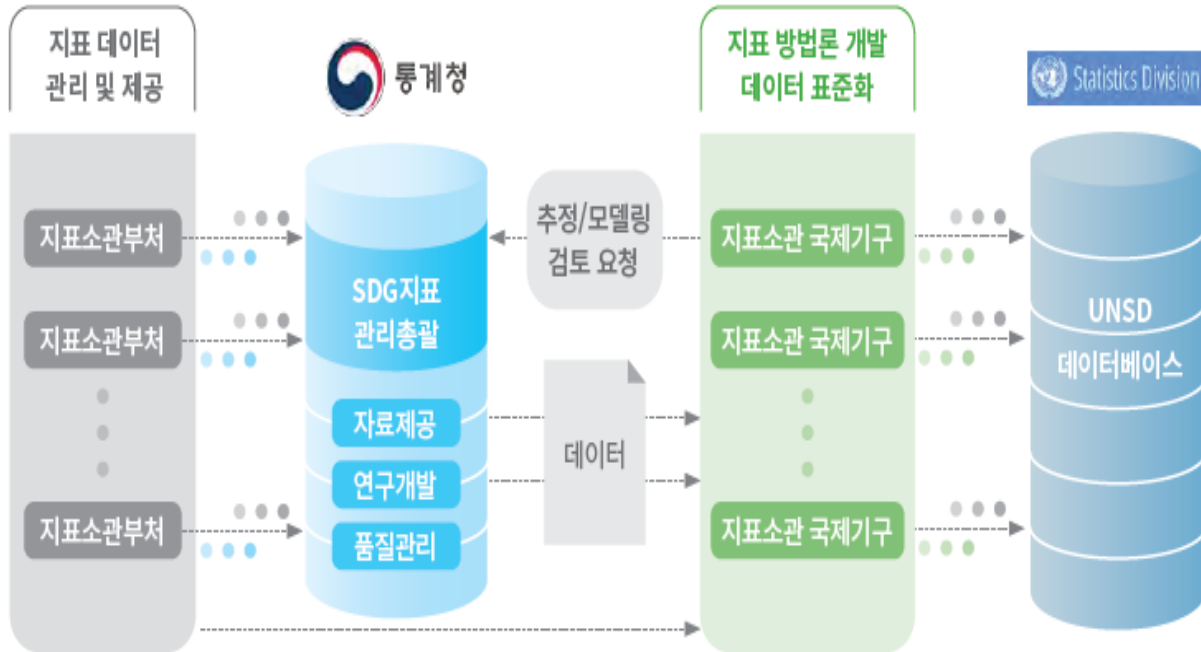
-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④ 북한의 ‘우리식 SDG17(우호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정부는 타국과의 교류 및 파트너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독립을 열망하는 세계인들과 유대 및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국가경제개발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있어 통계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통계의 발전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당국은 통계의 통합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법률과 통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함으로써 통계가 사회경제 발전에 전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한다.”(2021 VNR)

## 2) SDGs 이행에서 국가통계당국(National Statistical Office)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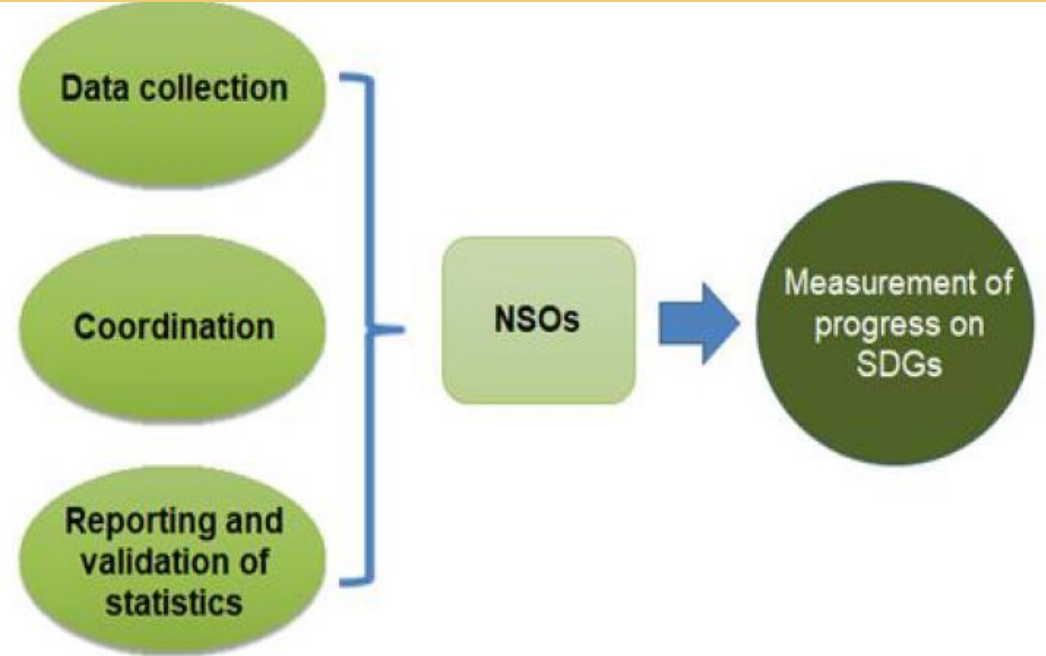
### ① 국가통계 → SDGs 지표 보고의 흐름



출처: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 국가통계당국(한국은 통계청, 북한은 중앙통계국)은 SDGs 데이터&메타데이터 수집 후 지표소관 국제기구로 제출 → 지표소관 국제기구는 국제비교 가능하도록 데이터 가공 후 유엔통계처(UNSD)로 제출

### ② 국가통계당국(NSO)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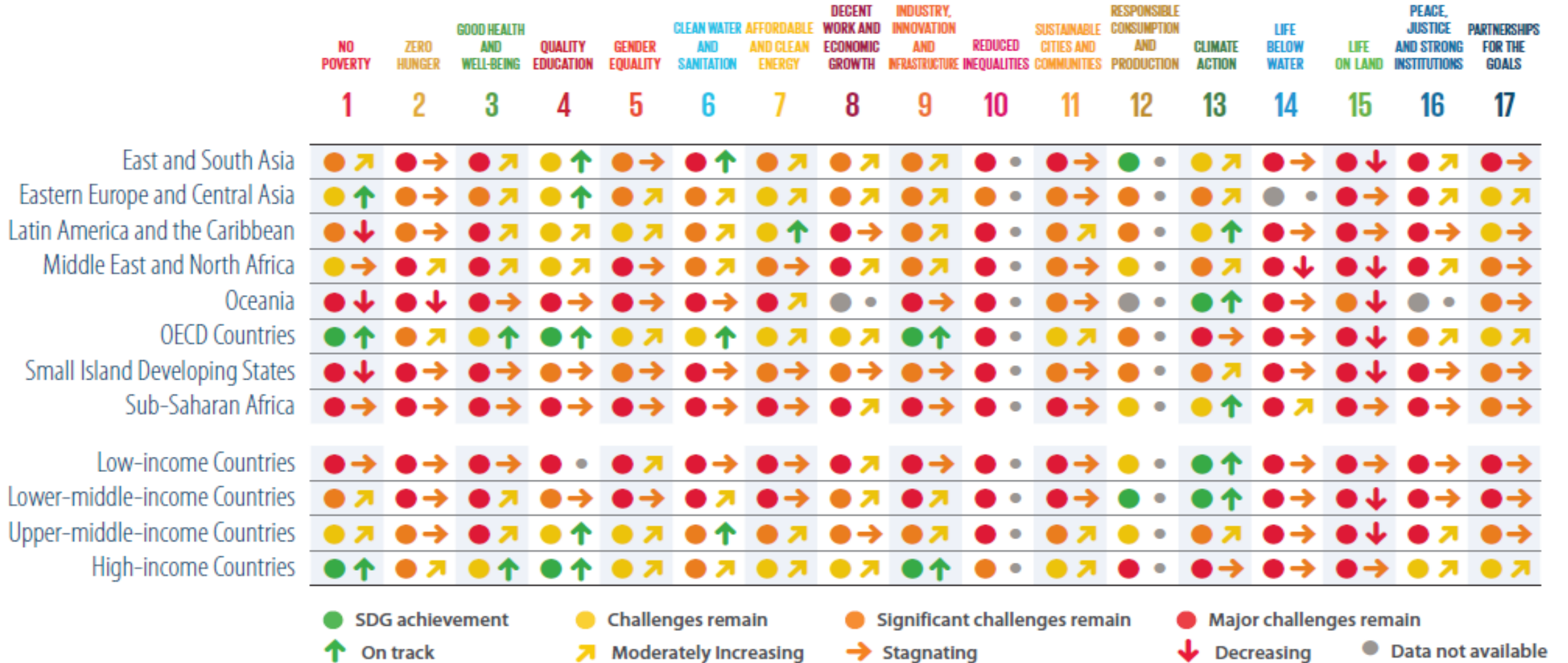
출처: UN SIAP, 'Official Statistics for SDGs'

- 국가통계당국(NSO)은 국내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 데이터를 수집·조정·검증하여 국가 SDGs 이행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SDGs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국가통계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3) 남북 SDGs 이행 및 SDGs 데이터 구축 현황

#### ① SDGs 이행현황(2021 기준)

< 2021 SDG dashboards by region and income group >





## <한국 2021 SDGs dashboards >



## <북한 2021 SDGs dashboards >





## <SDR 2021의 Country Profile >

### KOREA, REPUBLIC OF

OECD countries

#### OVERALL PERFORMANCE

COUNTRY RANKING

Korea, Rep.

**28** / 165

COUNTRY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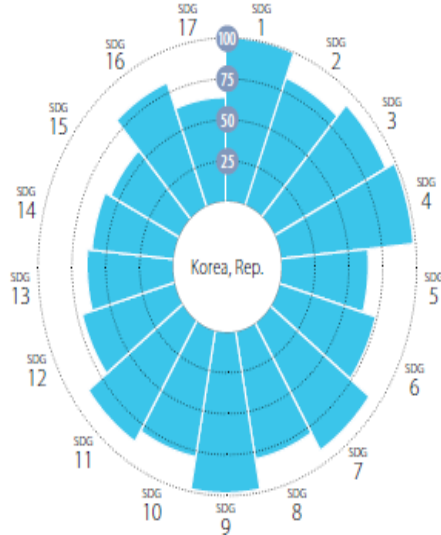


STATISTICAL PERFORMANCE INDEX

0 (WORST) TO 100 (BEST)



#### AVERAGE PERFORMANCE BY SDG



###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East and South Asia

#### OVERALL PERFORMANCE

COUNTRY RANKING

Korea, Dem. R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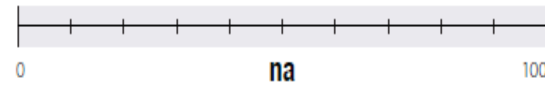
**NA** / 165

COUNTRY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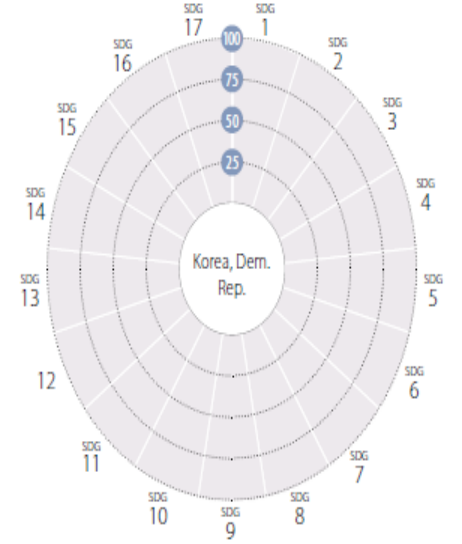


STATISTICAL PERFORMANCE INDEX

0 (WORST) TO 100 (BEST)



#### AVERAGE PERFORMANCE BY SDG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SD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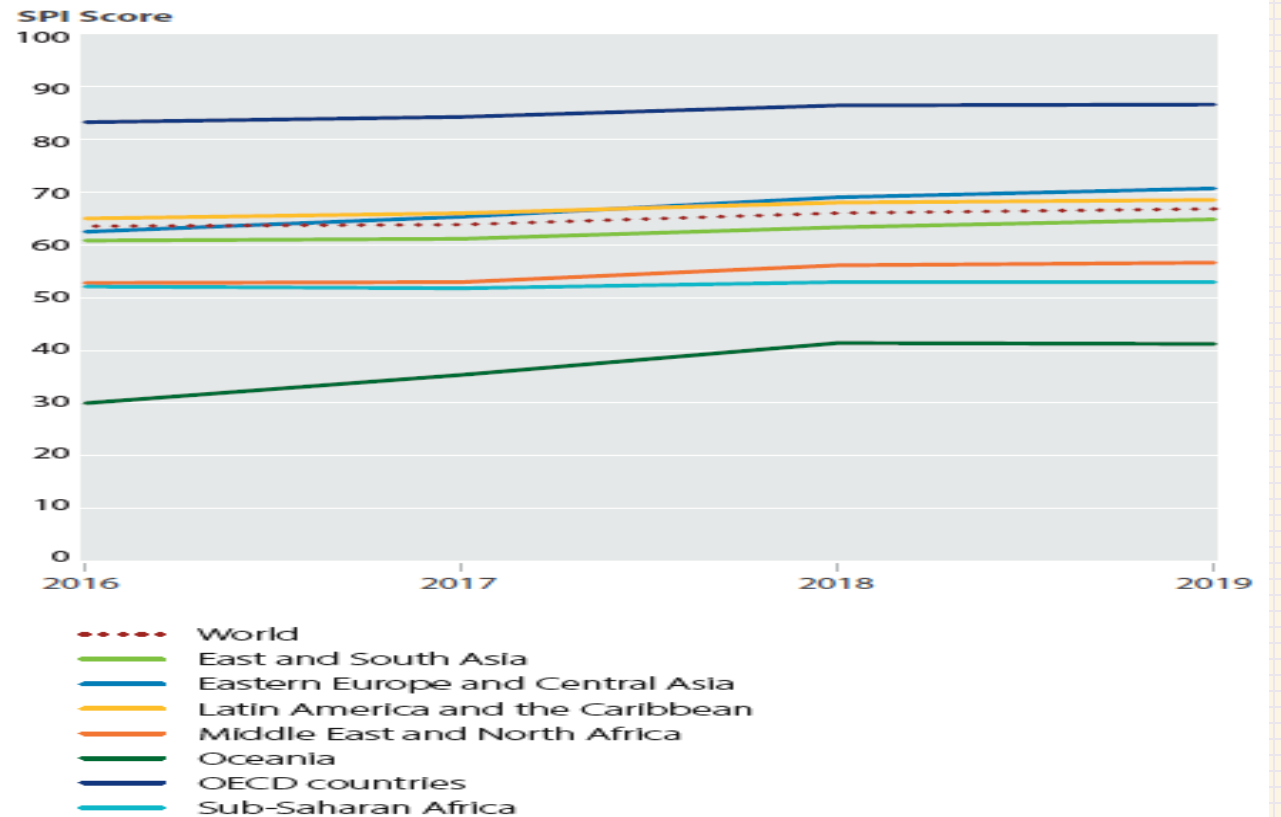
- SDR2021 보고서의 SDG Index score에 따르면, **한국의 SDGs 이행 수준은 165개 국가 중 28위 수준임.**
- World Bank가 각국 통계 수행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Statistical Performance Index(SPI)에 따르면, **한국의 통계수행점수는 100점 만점에 88.3점으로, 10위/174개 국가 수준임.**
- 북한의 경우, 가용데이터 불충분으로 평가가 불가함.

## ② 국가별 통계수행역량지수(SPI)

Country		Statistical Performance Index (SPI) score
1	Norway	90.1
2	Italy	89.8
3	Austria	89.1
4	Poland	89.1
5	Slovenia	88.9
6	United States	88.9
7	Spain	88.9
8	Sweden	88.5
9	Finland	88.5
10	Korea, Rep.	88.3
<hr/>		
165	Guinea-Bissau	33.4
166	South Sudan	30.5
167	Gabon	28.1
168	Syrian Arab Republic	26.5
169	Kiribati	24.5
170	Micronesia, Fed. Sts.	23.8
171	Turkmenistan	23.5
172	Libya	21.4
173	Marshall Islands	20.9
174	Somalia	19.6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SDR 2021)

## <SPI score by region, 2016-2019>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SDR 2021)

- World Bank는 통계수행 관련 5가지 기준(data use, services, products, source, infrastructure)으로 SPI 측정, 탑 30위는 모두 OECD 국가임. 북한은 데이터 불충분으로 평가가 불가함.

## **2. 북한의 SDGs 이행과 ‘통계 역량강화’ 필요성 (2021 북한 VNR)**

# 1) 북한 SDGs 이행체계

## ① 북한의 국가 SDGs

- ▶ 북한은 ‘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과 ‘경제건설총집중노선’(2018.4.채택)을 바탕으로 17개목표, 95개 세부목표, 132개 지표를 확정함.
- ▶ 대체적으로 UN SDGs 17 개 목표와 일치, 일부지표(SDG 8, 10,16 등)는 사회주의 국가 특성 반영함.

No.	목표	No.	목표
1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	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
2	농업과 식량자급의 지속적 발전	11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조건 및 환경 보장
3	모든 인민의 건강보장과 삶의 질 개선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보장
4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13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 여아의 권한 강화	14	해안과 바다,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6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 보장	15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토지황폐화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7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의 접근보장	16	사회주의 체제강화
8	지식기반 자력갱생 경제구축, 전인민의 직업보장	17	우호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9	주체사상과 과학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 북한은 SDGs와 국가경제발전목표(2016~2020&2021~2025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를 연계함. NDSs는 주로 경제분야에 초점을 두었고, SDGs는 경제·사회·환경분야 등 넓은 범위와 주제를 포괄함.

<북한 SDGs와 N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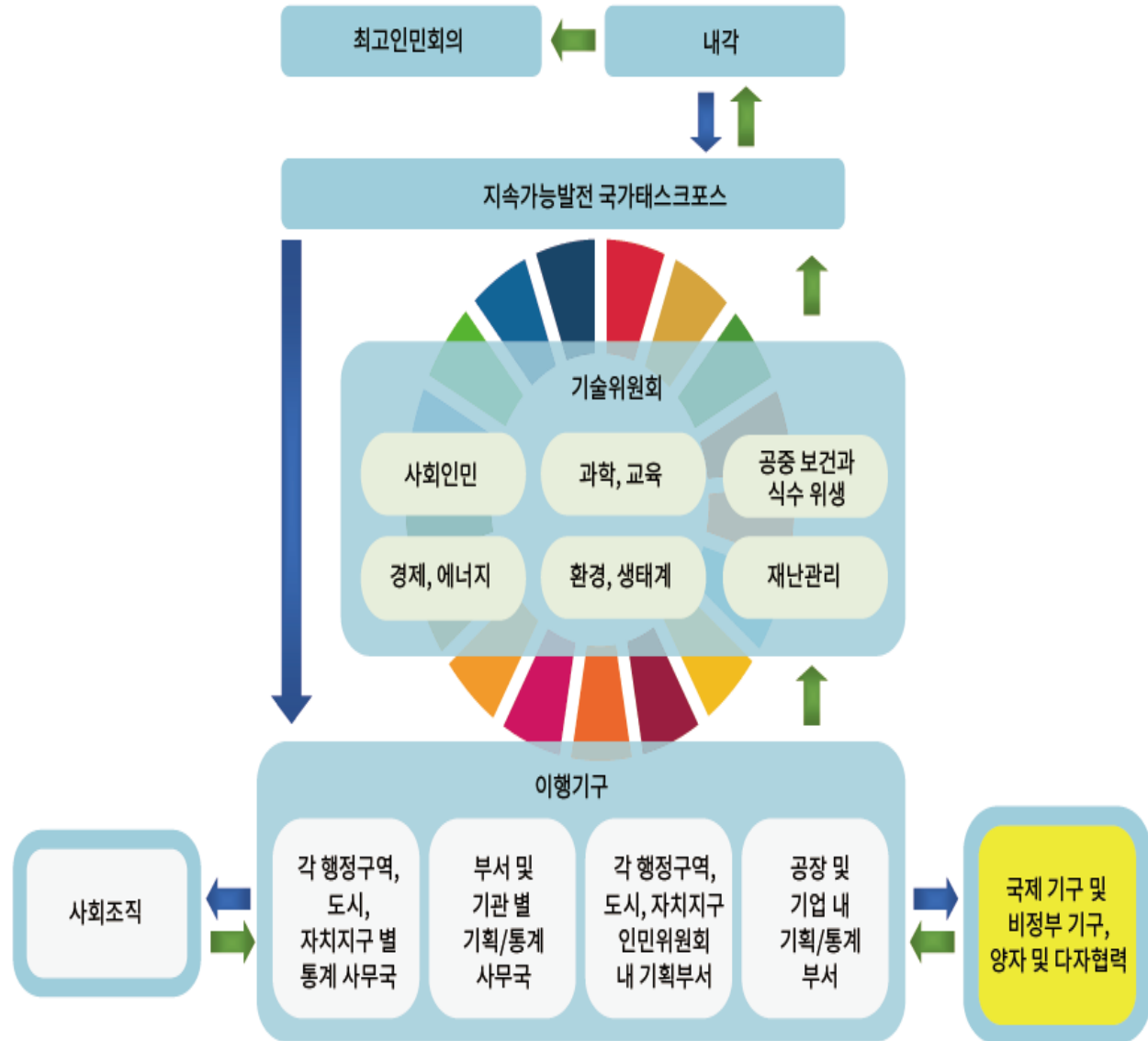


➤ 2021 VNR에서 밝힌 향후 계획

- ① 북한 SDGs 지표 보완, 기준연도 데이터(2015년)와 추가 데이터에 따라 SDGs 목표 추진
- ②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적 보건위기’ 대처를 위한 비상대책 캠페인 강화
- ③ 국가 통계 통합 및 분석, 전국적인 통계 통합 시스템강화를 통해 중앙통계국의 역량강화, SDGs 이행 현황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 국제표준지표와 방법론 채택
- ④ 각부처의 SDGs 이해제고,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증진

출처: 권을·최장호 외(2021),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 ② 북한의 SDGs 이행 체계



- SDGs 국가태스크포스(TF) SDGs 진행상황 총괄, 감독
- 기술위원회(TC)(중앙통계국 중심으로 6개 분과구성), 각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SDGs 이행상황 평가, 이행결과 TF에 제출
- 2019년(‘동북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자 관계포럼’) 제출 자료에서는 6개 TC를 ①사회인구(socio-demography), ②공공보건과 식수위생, ③농업과 영양, ④과학과 교육, ⑤경제와 환경, ⑥생태계와 보존으로 구분
  - 최근 “과학과 기술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라고 선언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점 등이 반영됨.



## 2) 북한 SDGs 이행에서 통계의 중요성과 통계국의 역할

### ① 북한 중앙통계국과 통계체계

- ▶ 중앙통계국은 내각의 독립부처로, 내각의 각 성에서 보고한 데이터를 집계, 정리, 분석, 제공, 공표함.
- ▶ 평양에 중앙통계국 본청과 1개의 지청이 있으며, 본청에는 17개 과에 약300여명이 근무함. 각 도별로 1개의 지방통계청(약 2,000명 근무)이 있고, 각 시, 군에도 통계 지방사무소가 있음. 기업소 단위 별로도 통계원 상주함.
- ▶ 내각 각 성의 통계기능과 관련, 각 성은 자체 행정조직을 통해 경제 주체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행정통계를 중앙통계국으로 보고함. → 원칙적으로는 중앙집중형 통계시스템임.

### ② 중앙통계국의 통계역량강화 중요성 강조

- ▶ 북한-UNCT의 유엔전략계획(UNSF 2017~2021)에서 설정한 4대 우선순위는 식량·영양안보, 사회발전서비스,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관리(data and management)' 임.
- ▶ 북한 SDG17에서는 '통계발전 중요성 부여', '국가통계당국을 강화하여 통계가 사회경제 발전에 전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 는 목표를 제시함.

### ③ 북한 SDGs 이행에서 중앙통계국의 역할

- SDGs TF 의장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부의장은 중앙통계국 부국장이며, 중앙통계국 당국자로 구성된 6개 기술위원회(TC)는 각 SDGs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행현황 평가, 보고함.
- 2021 VNR에 사용한 주요 SDGs 데이터(2015년 베이스라인) :
  - 중앙통계국과 유엔이 수행한 2014 사회경제인구보건조사(SDHS), 2017 MICS, 중앙통계국이 수행한 2015 말라리아인식도조사, 중앙통계국이 수집한 국가통계를 SDGs 데이터로 사용하였음.
  - 북한 SDGs 데이터의 양과 질은 중앙통계국의 통계수행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임.
- 2021 VNR에서는 SDGs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시기적절한 통계를 생산”이 중요하며, 중앙통계국의 역량강화가 필수임을 강조함. 또한 새 5개년 계획(2021~2025) 시행에 필요한 통계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나라의 경제발전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분석평가하기 위해 통계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선진적인 통계장악과 계산, 분석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통계의 전면성과 객관성, 과학성,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실천적인 대책들이 제기되고 있다.” 「로동신문」 2021. 1. 31.

### 3) 북한 SDGs 통계구축의 문제점

#### ① 국가통계의 체계적 수집 미진

- 원칙적으로는 중앙집중형 통계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내각의 각 성이 생산한 통계들이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로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국가 통계 수집·생산·분배의 체계성 부족, 중앙통계국의 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임(정규승, 2020).

#### ② ‘data gap’ 으로 인한 문제

-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북한통계(특히 경제통계)는 보정·추정치가 많으므로 정확도가 낮으며, 동일 변수에 대한 데이터도 상이한 경우가 많음.

#### ③ 국제표준과의 호환성 부족

- 북한의 국가통계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사회인구, 보건, 영양 부문 통계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나, 특히 북한의 경제부문 통계는 국제표준과 산출방식이 다르므로 국제비교가 매우 어려움.

### **3.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남북통계협력 방안모색: 중앙통계국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 1) 북한 중앙통계국(CBS)과 UN 간 통계역량강화 협력 사례

## ① WFP/UNICEF/WHO의 북한영양조사(Nutrition Survey) 통계 지원

➤ CBS는 WFP, UNICEF, WHO 등의 통계 기술지원을 받아 영양조사(98, 00, 02, 04, 09, 12년)를 수행함. UN의 통계 기술지원 결과, **2012년 조사 시에는 CBS가 주도적으로 자료조사, 자료처리, 입력, 검수 등을 수행함.**

< 영양조사 시 CBS 교육 현황 >

출처: 한국통계진흥원 2013

연도	조사인원 구성	통계교육	통계처리 주체
1998	14개팀(1팀당 5명) - 북한직원 4명, UN 1명	장소: 어린이영양연구소(ICN) 평양사무소 내용: 표본추출, 인체측정법, 부종 식별방법 등	각 UN 담당자가 데이터 취합, UNICEF가 데이터 검사 후 최종 입력
2002	4개팀 -중앙조정팀(CBS, ICN) -자료조사 20팀 -자료입력 및 품질관리 (CBS 1명) -실행계획팀(CBS 37명)	(훈련1) 장소: 인민대학습당, 기간: 3일, 대상: CBS 관 료, 각 도의 데이터 검수원 (훈련2) 장소: 인민대학습당, 기간: 6일, 대상: 자료조 사팀 (훈련3) 장소: CBS, 기간: 2일, 대상: CBS 자료입력 및 실행계획팀	(자료입력) 자료입력 및 품질관리팀 컴퓨터에 자료 입력 (자료검사) Epi-info 통계프로그램 이용, 통계오류 검사 (자료분석) 국제기구 컨설턴트의 지 원 하 CBS 직원이 수행
2012	전체 20개팀(각 도별 2팀) 각 팀은 3명의 조사원 (팀장1명, 조사원 2명)	(훈련1) 기간: 4일, 대상: 북한 검수원들을 교육 할 CBS&ICN 관료, 내용: 표본추출법, 조사절차, 자료입력과 분석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법 등 (훈련2) 기간: 6일, 방법: UNICEF 직원의 도움을 받아 CBS 관료가 북한 검수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	(자료입력) CBS 직원, 각 팀의 팀장 및 WHO/WFP 직원 참여 (자료검사) 각 팀의 팀장(북한관료)실 시, ENA 소프트웨어 사용

## ② UNFPA의 인구센서스 통계 지원(1·2차 인구센서스 및 2014 SDHS)

- 1993. 12., UNFPA의 통계기술 지원을 받아 최초의 현대식 인구센서스(1차 인구센서스) 진행, 1995 CBS가 '인구일제조사자료집' 발간하였으나, **분류항목이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국제비교가 불가하였음.**
- 제2차인구센서스(2008) 준비기간동안, UNFPA는 CBS를 대상으로 통계 기술지원과 역량강화훈련 제공, **한국정부도 남북협력기금(약 400만 달러) 공여하여 통계역량강화 훈련 등을 지원함.**
  - △ 5만세대 대상 시범조사(Pilot survey), △국제기준에 맞춘 센서스 설문지 제작, △ CBS 당국자에게 자료관리, 처리, 입력 등에 관한 통계교육, 2007년 필리핀에서 CBS를 대상으로 집중적 통계역량강화 훈련 등 제공함.
  - 그 결과, 인구, 출생, 사망, 교육정도, 경제활동, 활동제약, 세대 등 7개 부문 53개 항목의 체계적 통계처리가 이루어짐. 단순 인구 규모만을 나타냈기에 정책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초로 **국제표준에 맞춘 전국단위의 인구통계를 생산하였음에 의의가 있음.**



➤ 제3차 인구센서스(2018)를 앞두고, CBS와 UNFPA는 2014년 사회인구보건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SDHS)를 수행· 조사보고서를 발간함. 한국정부도 80만 달러를 공여하여 동 프로그램을 지원함.

- 2014 SDHS에서 CBS는 UNFPA의 일부 도움을 받아 조사총괄, 도/시/군 통계사무소 감독 등의 전반적 조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
- CBS, 김일성대 인구연구소의 주도로 북한전역 11개도 13,250가구(4만여명) 대상으로 경제, 사회, 인구, 보건조사 진행, 보고서에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특징, 출산, 가족계획, 생식보건, 사망, 고령화 등에 관한 구체적 통계를 수록함.

➤ 2014 SDHS 조사결과는 2021 VNR의 SDGs 데이터로 사용됨.

### ③ UNICEF의 MICS 통계 지원

- MICS는 어린이와 여성의 보건, 건강, 교육, 복지 내용 수록함. CBS는 UNICEF의 지원으로 MICS1(95~99), MICS2(99~04), MICS4(09~12), MICS6(16~20) 라운드에 참여하였음.

<MICS6 조사내용>

- UNICEF는 4회 라운드를 걸쳐 CBS에게 MICS 조사 및 통계훈련을 제공함.
- MICS1, 2의 가구 표본수는 3,600개, MICS4는 7,500개, MICS6는 8,500개로 조사 대상이 확대됨. 또한 기존에는 가구, 여성, 아동만을 조사대상에 포함했으나, MICS6에는 남성도 포함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함.

	조사내용
가구	가구정보, 가구구성원, 교육수준, 가구특성, 연금여부, 에너지사용, 방충망, 식수위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염분섭취, 식수질
여성 (15~49세)	개인정보, 기본조사, 매스미디어 및 정보통신, 출생정보, 희망출산시기, 산후건강, 산후건강확인, 피임, 취약계층의료, 할례,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피해, 결혼 및 동거, 성건강, 성생활, HIV/AIDS, 산모사망률, 음주, 흡연, 행복도
남성 (15~49세)	개인정보, 기본조사, 매스미디어 및 정보통신, 출생정보,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피해, 결혼 및 동거, 성건강, 성생활, HIV/AIDS, 할례, 음주, 흡연, 행복도
아동 (5세 미만)	개인정보, 기본조사, 출생등록, 아동발달, 가정교육(1~4세), 아동의식, 아동장애(2~4세), 모유수유 및 식이기준섭취(0~2세), 예방접종(0~2세), 병간호, 신체측정
아동·청소년 (5~17세)	개인정보, 기본조사, 아동노동, 가정교육(5~14세), 아동장애, 부모참여(7~14세), 기본학습능력(7~14세)

자료: UNICEF MICS 홈페이지(<https://mics.unicef.org/>, 검색일: 2019. 11. 15).

출처: 이종규(2019), 북한의 경제사회지표분석: 복합지표조사(MICS)를 중심으로

<MICS 라운드별 조사방법>

	MICS1 (1998)	MICS2 <sup>a</sup> (2000)	MICS4 (2009)	MICS6 (2017)
팀	14개 팀	120개 팀	20개 팀	20개 팀
구성원 수	2명	2명	6명	8명
구성원 역할	국제기구 <sup>1)</sup> 북한당국자	통계측정 건강측정	감독관 1명 측정자 1명 인터뷰어 3명 운전사 1명	감독관 1명 측정자 2명 인터뷰어 4명 운전사 1명
조사자 훈련기간	1998.09.16~17 1998.09.21	2000.04.24~25	2009.09.06~10 2009.09.11	2017.06~07 (39일간)
조사기간	1998.09.23. ~ 1998.10.16	2000.05.08. ~ 2000.05.12	2009.09 ~ 2009.10	2017.08 ~ 2017.10

주: 1) MICS1에서 국제기구 담당자는 UNICEF 8명, WFP 3명, EU 3명으로 구성.

2) MICS2에서는 북한당국 조사자들이 설문을 주도적으로 진행.

- MICS1에서는 14개 조사팀으로 구성, 한 팀당 국제기구담당자, 북한당국자의 2인 1조로 구성됨.
- MICS2에서는 국제기구 담당자가 북한에서 선발된 관료(CBS) 30명을 교육시킨 후, 교육받은 30명이 다시 조사원 90명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함.
- MICS6의 가계재산, 주거환경, 영유아영양상태 등 생활수준에 관한 통계는 대다수 개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이로인해 북한의 수준을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김석진, 홍제환 2019).
- MICS6(2017년 시행) 결과는 2021 VNR의 SDGs 데이터로 사용됨.

#### ④ UNESCAP의 북한 MDGs 통계역량강화 훈련

- UNESCAP은 2006년부터 한국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북한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훈련을 제공, 시장경제, 에너지, 환경, 교통, 수송, 지역협력(경제관련 및 통계)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고자 함. **UNESCAP의 통계교육은 경제통계 및 MDGs · SDGs 통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됨.**
- UNESCAP은 2011.5부터 19일간 필리핀통계연구훈련센터(SRTC)와의 협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CBS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진행함. MDGs 통계 생산을 위한 국제표준· 이론· 방법론, 계량통계기법 소개, MDGs 통계분석 프레임워크, 데이터 및 코딩방법 등 전반적인 MDGs 통계 생산과 관련된 통계기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CBMS, 2011).

#### ⑤ UNESCAP의 국민계정(SNA) 훈련

- UNESCAP은 2013년 10월~11월 약 한달간 SRTC와의 협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CBS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위한 국민계정 수집역량강화 2008국민계정체계 기초’ 훈련을 진행함.
- **본 훈련은 CBS의 국제표준에 의거한 국민계정(SNA) 지식 습득, 경제통계 생산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였음.** 2008SNA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SNA의 생산, SNA 수집에 필요한 국제표준, 기본 프레임워크 산출방법, 데이터 소스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함(SIAP, 2013).

## ⑥ UNESCAP SDGs Statistics 훈련

- ESCAP은 2015년 4월부터 5월 간 아시아태평양통계연수소(SIAP), 필리핀통계연구훈련센터(SRTC)와의 협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CBS 관료 1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하였음.
- CBS 관료들이 국제표준에 맞는 국민계정(SNA)과 경제통계를 생산하고 기본적인 SDGs 목표와 지표에 관한 이론교육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SDGs 목표와 지표에 관한 데이터, 2008SNA 프레임워크, 2008SNA 통계생산과 수집을 위한 통계 방법론 등을 교육함**(Philippine Statistic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15).

## ⑦ UNESCAP Regional Workshop on SDG indicators

- UNESCAP은 2019년에 베트남 다낭에서 SDG 통계 지표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이는 북한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의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지역워크숍(Regional Workshop)의 일환으로 진행됨.
- 본 워크숍에서는 **SDGs 지표 산출을 위한 기초 이론, SDGs 지표계산 방법 등을 교육하였음**. 또한 데이터 소관기구인 FAO, WHO, UNEP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해당 SDG 지표 계산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음(UNESCAP, 2019).
- **북한은 UNESCAP의 SDGs 훈련, SDGs 지표산출 지원은 2021 VNR 작성 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함**,<sub>25</sub>

## 2) SDGs 달성을 위한 남북 통계협력에 대한 시사점

- ▶ 북한은 SDGs 원칙을 수용하여 SDGs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 통계시스템의 미진, 'data gap'으로 인한 문제점, 국제표준과 호환성 부족 등으로 SDGs 데이터 생산에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중앙통계국의 역량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해 왔음.
- ▶ 반면, 한국의 국가 통계역량은 World Bank의 국가통계수행역량인덱스(SPI)에서 88/100 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며, 2020년에 SDGs 지표 전문가 그룹(IAEG-SDGs)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1년간 대표로 활동하는 등 통계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UN SDGs 17.18과 17.19에서는 저개발국가의 통계역량강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수한 한국의 통계역량과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한에 대한 통계지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 또한, 과거 남북관계 경색 시기에도 통계협력은 국제기구를 통해 지식기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살펴보았음. 이는 남-북-UN의 삼각협력을 통한 다자적 협력방식으로, 현재에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남북교류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VNR 2021에 따르면, 2021 VNR에 사용한 SDGs 데이터(2015년 베이스라인)는 북한국내통계, 2012영양실태조사,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SDHS), 2015년 말라리아 인식조사, 2017년 MICS 데이터 등임. 또한 ‘UNESCAP이 제공한 SDGs 성과지표, 정의, 지표값 산출 교육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VNR을 작성할 수 있었다’ 고 언급함.

☞ 이는 한국과 국제기구가 공여하여 지난 10여년 이상 꾸준히 북한 중앙통계국 관료들에게 통계부문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속한 결과, 북한이 국제표준과 규범에 맞는 SDGs 통계를 생산하게 되었음을 시사함.

➤ 또한, 경제부문 통계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통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UN이 권고하는 보편적 경제통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됨.

- 북한 2021 VNR에서 북한은 종래에 생산하던 사회주의 통계방식의 사회총생산이 아닌, GDP에 의한 경제통계를 수록한 점이 특이함(이석기, 2021).

- 아울러, 북한이 ESCAP으로부터 국민계정체계(그 중 2008SNA 프레임워크)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도 중요함. 과거 러시아의 경우 1992년 시장경제제 체제로 본격화하며 SNA로 전환했던 점(김영진, 2013)을 미루어 보면, 북한이 SNA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추후 한국정부가 UN을 통해 통계역량사업을 지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UNFPA와 UNESCAP의 통계훈련은 한국정부가 재정지원을 한 사례였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은 이해당사자 (stake-holder)로서 입장과 정책을 일부 반영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함. 예컨대 한국정부가 UNFPA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자 통계청이 자문역할로 참여할 수 있었고, 통계청이 요청한 4개 항목을 북한센서스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음.

☞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훈련주제를 구상한 뒤 해당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측과 훈련주제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임.

☞ UN은 개발협력 사업 시 사업계획안(project document)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간의 사업을 진행하므로 사업계획 구상단계에서 한국 전문가를 자문역할 등으로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북한과 UN협력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입하여 한국정부, UN기구, 북한이 모두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추후 SDGs 또는 SNA 통계훈련 시에도 국제통계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CBS 인원들을 참여시켜 중복훈련을 피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북한영양실태조사, MICS, UNICEF 보고서 등을 검토하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CBS 인원을 확인할 수 있음. 예컨대 2017MICS에 기술 및 현장 코디네이터, 샘플링, 기술위원회 등 조사 전반에 참여한 장○○, 리○○ 등이 있음. 2019년 UNICEF보고서에도 장○○은 아동데이터관리 부서 국장으로 참여하였으며 2018년 UNICEF 보고서에 리○○은 데이터분석가로 참여하기도 하였음.

☞ CBS와 UNFPA가 작성한 SDHS(2014)에 따르면,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통계국 당국자들은 UN으로부터 전수받은 새로운 통계지식, 방법론, 통계조사 결과 등을 전국 및 지방단위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재교육하고 조사결과를 전수함. 따라서 동일한 인원에 대한 연속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같은 주제에 대한 심화 교육 시에는 북한의 실제 데이터를 국제표준 방법론에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연습 훈련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임.

▶ 또한 실무자 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관계자에 대한 훈련 방안도 점진적으로 시도해봐야 할 것임.

- ▶ 셋째, 향후 통계협력 주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경제, 환경, 보건 통계를 더욱 심화하여 다룰 수 있을 것임. **경제통계와 관련**, SNA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산업분류(industrial classification) 등에 관한 경제통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의 산업분류는 다소 상이하므로 국제비교가 어려운 실정임.
- ▶ **환경통계와 관련**, 북한은 2021 VNR에서 북한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감축 등의 환경 SDGs는 자국의 국가산림전략(2015-2044), 국가환경보호전략(2019-2030), 국가재난감소전략(2019-2030)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밝힘. 이를 반영하여 관련 2012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북한의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통계 역량강화 훈련,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 **보건통계와 관련하여**, 북한 VNR의 목표 6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보장’에서는 식수 및 위생(WASH)과 수질개선, 하수장처리 문제를 연계함. 이에 따르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관련 데이터는 MICS를 통해 수집되었으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표평가는 국제표준지표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하였고, 수자원 및 수질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는 점도 한계라고 밝힘.** 이를 고려하여 추후 보건부문의 통계훈련 주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